

등록번호	행자위-3179	전문위원	수 석 전문위원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 원 장	의 장	결
등록일자	2016 11. 10							재
결재일자	2016 11. 10	조태환	이응록	김남준	김동철, 신영호, 윤석우			
공개구분	공 개							
		협조	홍병훈	이종열				

-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I. 연수개요	2
II. 방문국가 현황	4
① 체코공화국	6
② 크로아티아	7
③ 슬로베이나공화국	8
④ 몬테네그로공화국	9
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9
⑥ 오스트리아	10
III. 방문국가별 연수내용	11
① 프라하1 구의회(시청)	11
②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17
③ 스플리트 대학교	21
④ 비엔나시 공무원교육원	27
⑤ 그밖에 참고 정보	35
VI. 총평 및 향후계획	40
① 총 평	40
② 향후계획 및 보완사항	41
V. 연수후기	42

-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I 연수 개요

1 연수 목적

- 동유럽 국가의 지방의회 운영, 대학교 운영실태, 지방공무원 교육원 운영시스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실태 및 관광 사례화 등 전반에 대한 비교연수 기회를 통해
-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도정접목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제안하는 등 의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방문기간 및 국가

- 기 간 : 2016. 10. 13(목) ~ 10.22(토), 8박10일
- 연수국가 : 동유럽 6개국(체코, 발칸4개국, 오스트리아)
- 연수단 : 13명(의원 8, 전문위원실3, 도 집행부2)

3 주요 연수내용

- 동유럽 국가의 지방의회 운영 실태 비교 시찰
- 대학교 운영실태, 학생후생복지 등 비교 견학
- 지방공무원 교육원 운영시스템 비교 시찰
- 유네스코 문화유적지 보존실태 및 관광사례화 비교 연수 등

④ 주요 공식방문 기관 및 역할 분담

분 야 별	담 당	착 안 사 항	비 고
총 괄	김동욱	연 수 총 괄	위원장
지방의회 운영실태	김종필 신재원	체코 프라하1 구의회(구청) ■ 동유럽 지방의회 전반적 운영실태 파악 ■ 입법활동 등 우수사례 자료수집 ■ 효율적 집행부 견제 기능 파악 ■ 의원 보수 등 후생복지 관련 자료수집	의원
대학교 운영실태	김석곤 유익환	크로아티아 스플릿대학교 ■ 대학교 전반적 운영실태 ■ 특성화 대학(과) 육성 실태 ■ 기숙사 등 학생후생복지 실태 등	〃
지방공무원 교육원 운영실태	김종문 이종화	오스트리아 비엔나시 공무원교육원 ■ 교육원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 ■ 공무원 인재육성 강화 프로그램 등	〃
유네스코 문화유적 보존실태	이공휘	유네스코 세계문화자연유산 보존실태 등 ■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실태 ■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관광사례화 등	〃
전문위원실 집행부직원		■ 국외출장계획 및 결과 정리 ■ 공식방문기관 섭외 및 견학자료 준비 ■ 현장활동 지원 및 사진 관리 등	직원

5 연수 주요일정

일 자	장 소	교통편	시 찰 일 정	비고
제1일 10.13 (목)	인 천	KE 5937 12:50	○ 인천공항 출발(약 11시간 소요)	
	프라하 (체코)	16:40	○ 프라하 도착	
제2일 10.14 (금)	프라하 /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전용차량 / ok818	○ 공식방문 : 프라하1 구의회(구청) 방문 - 프라하1 구의회와 집행부간 관계 - 의회의 주요기능(입법,예산심사,감사 등)파악 - 의원 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태 파악 등 ➡ 체코 프라하 의회운영실태 견학을 통한 도의 회 및 의원별 역량강화 접목 모색 ○ 세계문화유산 보존실태 및 관광사례화 조사 - 프라하 역사지구(1992년 등재) 등 • 담당자 : Ms. Dorian Gaar(Foreign Relations) • 전화번호 : +420 221 097 721	
제3일 10.15 (토)	블레드 류블리ানা (슬로베니아)	전용차량	○ 세계문화유산 보존실태 및 관광사례화 조사 - 블레드 성, 사원 등 구시가지 고대건축물 등	휴일
제4일 10.16 (일)	포스토이나 플리트비체 (크로아티아)	전용차량	○ 세계자연유산 보존실태 및 관광사례화 조사 - 포스토이나 동굴,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견학	휴일
제5일 10.17 (월)	스플리트	전용차량	○ 공식방문 : 스플릿대학교 방문 - 특성화대학(과) 조성 및 운영 실태 - 대학의 평생교육진흥 운영 실태 - 취업 및 장학금 등 복지현황 등 ➡ 우수사례 비교분석하여 충남도립대학교에 정 책제언 • 담당자 : Ms. Ana Cosic(Head of International Relations Office) • 전화번호 : +385 21 440 343	

일 자	장 소	교통편	시 찰 일 정	비고
제6일 10.18 (화)	드브로브니크	전용차량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실태 및 관광사례화 - 199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 등 ○ 드브로브니크 재래시장 현지 시찰	
제7일 10.19 (수)	코트로 (몬테네그로)	전용차량	○ 세계자연유산 보존실태 및 관광사례화 - 코트로 고대성벽, 성 트뤼폰 성당 등	
제8일 10.20 (목)	사라예보 (보스니아)	전용차량	○ 보스니아 내전현장 및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라틴다리 견학 - 로마 카톨릭 대성당, 라틴다리 - 구시가지 내전현장 및 공원묘지 등 시찰	
제9일 10.21 (금)	비엔나 (오스트리아)	OS758 전용차량	○ 공식방문 : 비엔나시 공무원교육원 - 공무원교육원 운영실태(조직,인력,예산 등) - 중점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 등 ➡ 외국 우수사례 비교 분석하여 道공무원교육원에 정책제언 및 접목방안 연구	
제10일 10.22 (토)	인천	KE937 11:50	○ 인천공항 도착 및 해산	

II

방문국가 현황

1 체코공화국

국 명	체코 공화국(영문: The Czech Republic, 현지어: Česká Republika)
위 치	북위 48~51도, 동경 12~19도(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와 접경)
면 적	78,864km ² (한반도의 1/3, 산악: 평지=3:7)
기 후	대륙성 기후. 겨울이 비교적 온화, 여름이 무덥지 않음(연평균 9~10도)
수 도	프라하(Praha)
인 구	1,054만 명(2015년 기준)
주요 도시	프라하(126만 명), 브르노(38만 명), 오스트라바(33만 명), 올로모우츠(23만 명), 플젠(19만 명), 리베레츠(17만 명) 등(2015년 기준)
민족(인종)	체코인(94%), 슬로바키아인(2%), 기타(4%)
언 어	공용어: 체코어 / 상용어: 영어, 독일어
종 교	가톨릭(39.2%), 개신교(6.2%), 희랍 정교(3.4%), 무교(40%), 기타(11.2%)
건국일(독립일)	1918. 10. 28.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독립)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실권자)	국가 원수: Milos Zeman 대통령 취임일: 2013.3.8. 총리: Bohuslav Sobotka(CSSD) 취임일: 2014.1.29.

** 자료원: 체코 통계청, 체코 정부 (2016년 7월 기준 확인 최신자료)

2 크로아티아

국명	크로아티아(Croatia)
위치	중남부 유럽, 이탈리아 반도 동쪽 아드리아해 건너편, 발칸반도 북서부에 위치
면적	56,594km ² (한반도의 1/4), 해안선 6,278km(본토 2,370km)
기후	지중해성(아드리아해 연안), 대륙성 기후(북동부지역)
수도	자그레브(Zagreb, 약 80만 명 거주)
인구	4,238,389명(2015년 기준)
주요도시	자그레브(약 80만 명), 스플리트(Split, 18만 명), 리예카(Rijeka, 13만 명)
민족	크로아티아인(90.4%), 세르비아인(4.4%)
언어	크로아티아어(라틴문자 사용)
종교	가톨릭(86%), 세르비아정교(4.4%), 회교도(1.5%) 등
건국(독립)일	1991년 6월 25일(유고연방에서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직선의 의원내각제
국가원수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Kolinda Grabar-Kitarović) 대통령

** 자료원: 크로아티아 통계청

3 슬로베니아공화국

국 명	슬로베니아 공화국(Republic of Slovenia)
위 치	유럽 발칸반도
면 적	20,273km ² (한반도의 1/11)
기 후	서안해양성 기후
수 도	류블랴나(33만명)
인 구	198만명(2015)
주요 도시	류블랴나
민족(인종)	슬로베니아계(83%), 세르비아계(2%), 크로아티아계(1.8%), 기타(13.2%)
언 어	슬로베니아어
종 교	로마가톨릭(57.8%), 이슬람교(2.4%), 동방정교(2.3%), 무교·기타(37.5%)
건국일	1991.6.25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
국가원수 (실권자)	다니로 튀르크(Danilo TURK) 대통령(2007년 12월 취임, 임기 5년)
GDP	424억불
1인당 GDP	30,870불
실질 경제성장률	2.5%
실업률	12.2%
물가상승률	0.2%
화폐단위	유로(€, '07.1.1 도입)

4 몬테네그로공화국

국 명	몬테네그로공화국(Republic of Montenegro)
위 치	발칸반도 남서부
면 적	13812
수 도	포드고리차(Podgorica)
인 구	657,394(2012년)
민족(인종)	몬테네그로인(43%), 세르비아인(32%), 보스니아인(8%), 알바니아인(5%), 기타(12%)
언 어	몬테네그로어
종 교	동방정교(74.2%), 이슬람교(17.7%), 가톨릭교(3.5%), 기타(4.6%)
건국일	2006년 6월 3일
국가원수 (실권자)	필립 부야노비치(Filip Vujanovic) 대통령(2008.5 재선, 임기 5년)

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 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osnia and Herzegovina
위 치	유럽 동남부
면 적	5만 1197km ²
수 도	사라예보
인 구	386만 7055명(2015년 현재)
민족(인종)	몬테네그로인(43%), 세르비아인(32%), 보스니아인(8%), 알바니아인(5%), 기타(12%)
언 어	세르보, 크로아트어
종 교	이슬람교, 세르비아정교, 가톨릭교
정치·의회형태	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양원제

6 오스트리아

국명	오스트리아(Austria, 獨文 Oesterreich)
위치	중부유럽 하부
면적	8만 3,879km ² (한반도 면적의 38%)
기후	대륙성 기후
수도	빈(獨文 Wien, 英文 Vienna)
인구	870만 명(인구 밀도= km ² 당 103.7명)
주요 도시	빈(184만 명), 그라츠(26만 명), 린츠(22만 명), 잘츠부르크(16만 명), 인스부르크(12만 명)
인구증가율	1.4%
인구구성	오스트리아계(91.0%), 슬라브계(4.0%), 터키계(1.6%), 독일계(1.0%)
상주 외국인	구 유고슬라비아인(40%), 독일인(15%), 터키인(13%), 기타(32%)
종교 구성	가톨릭(63.2%), 개신교(3.9%), 이슬람(6.2%)
언어	독일어
건국일	최초 건국연도는 996년, 국경일 10월26일은 1938년 독일에 강제 합병된 후 2차 세계대전을 거쳐 1950년 승전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 독립을 선언한 날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대통령 Heinz Fischer[국가 원수: 취임일: 2010년 7월 8일 임기 6년 (~2016년 10월) 총리 Christian Kern[실권자: 취임일: 2016년 5월 17일 임기 5년 (~2018년 12월 16일)]

**자료원: 오스트리아 통계청, Eurostat, Monatsberichte, OeNB, IWF, WKÖ, Die Presse,
주 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Ⅲ 방문국가별 연수내용

① 프라하1 구의회

①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6. 10. 14(금) 10:00~12:00
- 참 석 자 : 연수단 13명, MS. DORIAN GAAR외 2명
- 회의진행 : 브리핑-위원장인사-질의응답-기념촬영

② 브리핑 주요내용

- 충남도의회 연수단의 프라하1 구의회 방문을 환영함.
- 작년 10월 서울 종로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기위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따뜻한 환대를 받은 좋은 기억이 있음.
-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급성장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고, 최근 체코항공과 대한항공간 비행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함.
- 프라하 1구역은 정부부처가 위치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상징성이 있는 의미있는 지역임.
- 프라하에는 전체 22개 행정구역에 총인구가 100만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1구역은 약 3만명의 인구와 299명의



< 프라하1구의회 의장 브리핑 모습 >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심부에 위치한 구역으로 다른 행정구역과 하는일에서 차이가 있음

○ 구의원은 총25명이고 의장이 구청장을 겸임하고 있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마칩

③ 위원장 인사말씀

○ 충남도의회 연수단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작년 한국방문을 통하여 한국의 정치, 문화 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됨.



○ 한국의 행정체계는 중앙-광역단체-기초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충남도의 경우는 광역단체로서 인구 200만명, 15개 시군이 있음.

- 도의원은 40명, 평균 6만명에 1명꼴로 선출됨.

○ 방문하게 된 목적은....동유럽의 지방의회운영, 집행부와 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충남도정이나 도의회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얻고자 방문하게 되었음.

○ 다시 한번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③ 질의 응답

Q : 구의회에서는 의장이 구청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알고있

는데, 집행부 전제는 어떻게 하는지, 의장의 정치적 위치 및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A :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한국과는 다름. 4년에 한번 선거에 의해서 25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정당수는 약 15개 정도임. 8개위원회가 구성되어 1주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함. 25명이 협의하여 과반수로 의사결정함.

Q : 5년전에 프라하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프라하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관광객을 상대로 소매치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와 현재를 비교해서 변화가 있는지?



A : 프라하도 다른 유럽도시와 비슷한 상황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됨.

프라하는 세계 안전한 도시 14위로 선정된 폭력범죄율이 매우 낮으며 구청차원에서도 이 부분(소매치기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Q : 공산체제하에서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현재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과거 공산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로의 변화된 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A : 과거에는 고대건축물만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명품매장 등 관광서비스 산업이 매우 발전되고 있음.

Q : 예산지원 관련 국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예산편성 및 집행시 의회와의 관계는?



A :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면 심사하여 승인함. 국가에서 인구수에따라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 학교예산임.

Q : 공산체제에서 바뀐지 약25년이 지났는데 지방의회의 정착도와 중앙차원의 간섭은 어떻게 되는지?



A : 지방자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정해짐. 한국처럼 중앙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Q : 프라하1구역의 가장 큰 중요한 현안사업은? 해결방안은?

A :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 등 교통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며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음.

Q : 지방의원 선거제도 관련, 시의원와 구의원 선출을 각 다른선거를 통해서 하는지?



A : 시의원, 구의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됨. 시의원은 75명이고 구의원은 25명임.

Q : 프라하1구역의 행정조직, 인구수, 예산, 공무원수는?

A : 인구는 3만명, 예산은 400만불, 공무원수는 300명, 행정조직은 구청장1, 부구청장2, 각 분야별 위원회8 등 총8명으로 모두 선출직 의원이 담당하고 있음.

Q : 부가가치세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 세율은? 국세인지?

A : 약 21% 정도이나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국세임.

예시> 의약품, 도서 등은 10% 수준



< 프라하1 구의회 방문후 기념사진 >

④ 시사점

○ 프라하1 구의회(구청)는 유네스코 문화유적으로 등재된 프라하 구시가지의 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 등 교통문제 해결과 관광객을 상대로한 소매치기 범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관광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프라하 시내의 트램>

- 버스는 시내진입을 제한하여 구시가지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트램탑승(대중교통시설 관광상품화)하여 이동 및 도보로 시내관광 유도



<프라하 바츨라프 광장>

- 고대건축물(프라하 성, 까를교, 바츨라프 광장 등)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화,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관광을 제공함.
- 광장을 중심으로 먹고, 보고, 사고, 즐길 수 있도록 상점 조성 유도,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문화를 조성함.
- 아스팔트가 아닌 돌을 활용하여 도로나 광장바닥을 조성함, 독특하고 특징있는 볼거리 제공



<광장내 노천카페>

②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①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6. 10. 15(토) 13:00~16:00
- 참 석 자 : 연수단 13명, 현지 안내인
- 회의진행 : 브리핑-위원장인사-질의응답-기념촬영

② 브리핑 주요내용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안내 표지판 >

- 국립공원 위치는 비하크 동쪽 10km(10km east of Bihac), 리카세니 주 (County of Lika-Senj) 이고, 좌표는 N44 52 40.008, E15 36 51.984 이며, 면적은 29,482ha에 달함.

- 플리트비체 호수는 1949년 4월 8일 법률에 의해 공공 유적지로 지정되었고, 1949년 관보(Official Journal, Narodne novine) No. 29호에 국립공원으로 선포되었으며, 1979년에는 세계유산지역으로 등재됨.

- 아름다운 호수들, 동굴 그리고 폭포들이 많이 있으며, 카르스트(karst) 지형에서 보이는 풍광의 전형임.

- 플리트비체 호수들의 유역은 생물 기원의



<국립공원 브리핑>

지형 형성물이자 석회암과 백운석으로 이루어진 카르스트 지형의 강 유역으로 약 20개의 호수가 있고, 이끼, 조류, 수생 박테리아 등을 매개로 하여 탄산칼슘이 물속에 침전됨으로써 만들어짐.

- 16개의 호수가 플라카펠라(Mala Kapela) 산과 플레세비카(Pljesevica) 산 사이에 서로 잇닿아 있으며, 상류 및 하류 호수로 나눌 수 있음.

③ 위원장 인사말씀

-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방문하게 되어서 영광임.
- 방문하게 된 목적은 세계적 관광지로 명성이 높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존실태 및 관광사례화 등을 살펴보고 충남도내에 있는 국·도립공원 관리 및 활성화 등에 활용하고자 함.



<국립공원 출입구>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제약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궁금함.
- 모쪼록, 많은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 및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④ 질의 응답

Q : 국립공원내 인구는? 공원내 주민의 수익창출은 어찌되는지?

A : 호수반경 20키로이내 약5천명의 주민이 거주함. 국립공원 관련된 일을 하는 주민은 약800명 정도임. 공원내에



서 운영하는 식당, 숙박, 버스운행 등이 주 수입원이라 할 수 있음.

Q : 국립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많은 제

약이 있을 것 같은데, 해결방안은?

A : 공원내 개발 및 인근 주민들의 사유재산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음. 특별한 해결책은 없으면 이지역 주민들이 감수해야 될 것임.

Q : 유네스코 지정후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A : 관광객이 급증하였음. 많은 예산지원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Q : 국립공원 관광수입은?

A : 연평균 약 100만명 이상이 방문함. 입장료 수입만으로도 약 200억 정도이며 주변 호텔, 캠핑장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300억원의 수입이 발생되고 있음.



<호수쪽 난간이 없음>

Q : 국립공원내 호수 주변 및 절벽쪽에 난간이 없는데 위험한 것은 아닌지?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A : 유네스코의 자연경관 보존정책에 따라 난간 등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광객 안전대책의 문제가 있지만 안전보안관의 수시순찰과 공원내 종사자들의 철저한 재난안전 교육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

④ 시사점

-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 관리
 - 천연목으로 난간 및 간이다리, 계단 조성
-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개발행위 금지 및 훼손 금지로 관람객 안전장치(난간 등) 설치 불가
- 국립공원 방문객 급증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 지역주민을 활용한 공원관리 일자리 제공 등
- 공원내 철저한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시스템 구축
 - 종사자들의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신속한 사고대처 가능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입장권>

③ 스플릿 대학교

①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6. 10. 17(월) 14:00~16:00
- 참 석 자 : 연수단 13명, MS. ANA COSIC
- 회의진행 : 브리핑-위원장인사-질의응답-기념촬영

② 브리핑 주요내용

- 스플릿대학교는 크로아티아에서 2번째로 큰 대학으로 학생수가 2만명이고 16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음.



<대학 국제협력담당자 브리핑>

- 한국과는 달리 모든 건물이 학교내에 있지 않고 각기 다른장소에 분산되어 있음.
- 많은 분야의 학부를 운영하는데 이곳에는 해양, 건축, 과학수사, 토지 등의 학과가 있음.
- 올해부터 철학과 내에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이 신설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약체결, 외대 학국어 강사 1명 파견됨.
-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음.

③ 위원장 인사말씀

- 충남도의회 연수단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학교 소개 잘 들었고, 스플릿대학교를 방문하게 된 목적은 충남도의회 행자위 업무소관에 충남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충남도립

대학교가 있음. 해외대학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도립대학운영에 정책제언하고자 방문하게 되었음.

○ 다시 한번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③ 질의 응답

Q : 16개 학부가 단과대학인지?

A : 12개는 단과대, 4개과는 종합대학내에 편제되어 있음.

Q : 학교예산 운영은? 4년제 또는 5년제로 운영되는지?

A : 학비는 전액 정부예산으로 무료이나 중도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일부는 학생이 부담해야 함. 보통은 3(대학)+2(대학원)로 운영되는데 의대의 경우 6년임.



Q : 학술연구용역 실적은?

A :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모든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교수익을 위한 연구용역이 미비하였음.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학술연구용역 수주를 확대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음.

Q : 스플릿대학교의 특성화 대학(과)는?

A : 의대의 경우 영어수업으로 학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인근 주변국가에서 유학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Q : 충남도립대학교는 충남도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대학으로 많은 해외국가의 대학과 교류하고 있음. 특히 헤어뷰티학과의 경우 한류 열풍과 더불어 많은 인기가 있는데, 교류할 의향이 있는지?

A : 헤어뷰티학과는 크로아티아에서는 생소하고 대학교 학과보다는 사설 학원쪽이 맞다고 생각함. 대학교내에 건강보건학과는 있는데 교류할 분야는 아닌 것 같음. 도립대와의 교류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Q : 건축학과는 몇 년제인지?

A : 5년임.

Q : 외국 유학생 비율은, 입학방법 등 절차는 복잡한지?

A : 주로 의대 쪽이며 30~50명 정도이고 교환학생까지 모두 200명 정도임. 의대를 제외한 영어수업이 없기 때문에 외국유학생 비율이 낮고 환경이 열악한 편임.



Q : 학생수가 2만명인데 기숙사 운영은 어떻게?

A : 약 2천명정도가 신청, 1천명 선발하여 운영함. 선발기준은 저소득층, 학점 등 고려하여 선발함.



Q : 학사운영은?

A : 10월초에 시작해서 7월정도까지

Q : 특성화대학 활성화 노력은? 세계적으로 어느분야가 경쟁력

있는지?

A : 의대쪽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함. 특히 연구분야로

Q : 학생취업률은?

A : 취업률을 조사하는 시스템은 없음. 하지만 무료로 공부한 의대학생들이 졸업후에 주변국가로 취업하여 국가적으로는 손실임.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Q : 교수 1명당 학생수는?

A : 분야별로 다른데 경제학부의 경우 10명 수준임.



Q : 한국의 경우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데 크로아티아는 어떤지?

A : 약 50% 수준임. 무조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님. 고등학교때부터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진학과 취업은 각자가 선택할 문제로 반드시 대학을 진학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님.

Q : 현재 학교의 가장 큰 현안은?

A : 분산된 강의실 정리,
영어수업 비중을 늘
려야 함.

Q : 외국인교수 비율은?
자국학생의 외국유
학 비율은?

A : 전체 교수 중 1~2명 정도로 매우 낮음. 유럽이라는 지
리적 특성상 주변국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음.



<스플릿대학교 방문후 기념 사진>

④ 시사점

○ 몇 년전부터 크로아티아를 찾는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였음에도 한국에 소재한 대학과의 교류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mou 체결하여 16년부터 철학과에서 한국문화, 언어 등 일부 강의 중



<대학교 홍보자료>

-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k-pop 등을 활용한 대학간 교류 및 한국문화 등을 알릴 수 있는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함.
- 의과대를 중심으로 영어수업 진행 등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수업료 등 학비 무료임.



<스플릿 대학교 전경>

④ 비엔나시 공무원교육원

①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6. 10. 21(금) 10:00~12:00
- 참 석 자 : 연수단 13명, DR. CHRISTIAN WIMMER
- 회의진행 : 브리핑-위원장인사-질의응답-기념촬영

② 브리핑 주요내용

- 비엔나시 인구는 약 180만명, 도와 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담당, 23개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행정구역은 18개 단위로 구성됨.
- 비엔나시 구성은 시장1, 7개 위원회, 60개 실무부서로 구성됨.
- 공무원수는 9만명, 남녀비율은 50% 수준임.
- 비엔나시는 1960년대에 2040년까지 장기적으로 비전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공무원교육원인 행정아카데미는 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등을 인트라넷으로 운영함.
- 신규공무원은 기본교육 3일 이수후 평가를 실시하여 미통과시 임용하지 않음. 대체로 각 전문분야별로 선발하여 퇴직시까지 지속적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로 양성함.



<국제협력담당자 브리핑>

- 고위공무원의 경우, 교육원에서 역량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이수토록하여 리더쉽 및 전문적인 지식프로그램 관리함.
- 행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다양함. 식품, 홍보기법, 갈등 위기관리, 여성공무원, 토론기법, 이민자문제 및 국제관계, 종교분쟁, 환경세미나 등. 공무원 개인의 능력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는 인사역량 프로그램도 시행함.
- 지금까지 간략하게 공무원교육원 및 비엔나시 행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림.

③ 위원장 인사말씀

- 교육원의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 충남도의회 연수단은 의원 8명, 집행부직원 5명 등 총13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회 업무소관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있음.



<위원장 인사말씀>

- 비엔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향상된 공무원 교육원 운영에 활용코자 방문하게 되었음.
- 다시 한번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③ 질의 응답

Q : 공무원이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되는데, 계약직 해고는 가능한지?

A : 계약직 해고는 가능하지만 단, 확실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함. 소방직은 계약직이 없고 전부 정규직으로 운영됨.



Q : 비엔나시 인구 180만명당 공무원이 9만명이면 인구 20명당 공무원 1명인데, 공무원 보수 등 많은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부담하는지?

A : 공무원 9만명중 6만명은 행정기관에 종사하고 나머지 3만명은 공사나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음. 재정부담이 있지만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절대적임.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보조해주고 있음.

Q : 공직자 정년은?

A : 65세임, 단 계약직은 상황에 따라 다름. 과거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Q :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고민은?

A : 세계 여러나라의 공통적인 고민이라고 생각됨. 세금이 철저한 징수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지식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누수없이 인계할 필요가 있음.

Q : 세금을 거의 소득의 50%로 받고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세금을 내면 불평불만이 많을 것으로 보여짐. 그런데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8년연속 선정된 이유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A : 전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세금 징수를 하고 있음. 퇴직후 국가에서 노후생활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불평불만은 없다고 생각됨.

Q : 공직 진출시 각 전문분야를 선택해서 시험도 응시하는지?

A : 전문분야별로 선발하고 그 분야에서 퇴직시까지 근무함. 간부직은 개방형 또는 직원중에서 희망자가 지원할 수 있음.

Q : 공무원이 9만명인데, 업무만족도는?

A : 대부분 만족함. 만족도를 위한 별도의 설문조사는 없음. 다만, 공직자가 국가를 이끌어 간다는 자존심이 강함.

Q : 승진에 대한 불만은?

A : 모든 분야는 전문직으로 운영되고 2년마다 한번씩 호봉이 승급되어 승진에 대한 열망은 없음.



Q : 교육프로그램 중 개인의 역량강화는?

A : 직원중 간부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있는 직원에 대한 발굴 및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Q : 정년은 65세인데, 시작은 몇 살부터?

A : 보통 18~20세부터 시작함. 최근은 공무원 정규직 채용을 자제하고 계약직 채용 비중을 늘려가고 있음.

Q : 공무원 임금수준은?

A : 직종별, 직급별로 차이가 있음. 사기업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님.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사회적으로 별로 안 좋음.

Q : 정규직, 계약직 호봉 승급 차이가 있는지?

A : 차이 없음. 정규직은 퇴직 개념이 아니고 휴직 개념임. 65세 이후로도 행정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함. 다만, 계약직은 예외임.



Q : 교육원 정원은? 그중에서 강사요원은?

A : 34명임. 일부 외부강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원 직원이 강의함.

Q : 교육프로그램 중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필수교육은? 교육선택은?



<기념품 전달>

A : 희망 수요조사를 근거로 교육원에서 최종 결정하여 진행함. 소방 및 안전교육은 필수임. 인트라넷에 공지된 프로그램 중 개인별 맞는 교육프로그램 선택하여 수강함.

Q : 유럽국가의 경우 철저한 세금징수 및 지출이 중요함. 교육프로그램 중 예산낭비 및 절감에 관한 교육과정이 있는지?

A : 기본과정에 편성되어 있고 예산집행에 관한 특별세미나 과정도 개설되어 있음.



<비엔나시 공무원교육원 방문후 기념 사진>

④ 시사점

○ 9개의 오스트리아 주 중에서 비엔나시의 공무원 행정 훈련기관으로서 연간 25,000여명을 교육하고 1,600개의 연수를 진행함

- 직무관련 전문교육부터 국제관계, 이민자 관련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행정아카데미 간판>

○ 소방 및 안전교육은 전 직원에 대한 필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그 외 모든 과정은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교육을 받음.

- 인트라넷을 통한 교육수요조사, 교육원에서 프로그램 구성 및 확정함. 각 개인별로 신청하여 필요한 교육 이수 (강제적으로 교육 이수시간 정해져 있지 않음)

○ 공무원 행정 훈련기관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생,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

- 학생, 중등학교 졸업생, 연구졸업생, 공공행정 대학생 등



<교육원방문 회의사진>

○ 공무원 능력(역량) 발굴 및 적재적소 배치

- 개인별로 잠재된 능력(역량)을 분석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유능한 공무원으로 양성

- 각 분야별로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하되,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추세임.
- “정규직=철밥통”으로 해고 불가, 계약직은 필요에 따라 채용 및 해고 가능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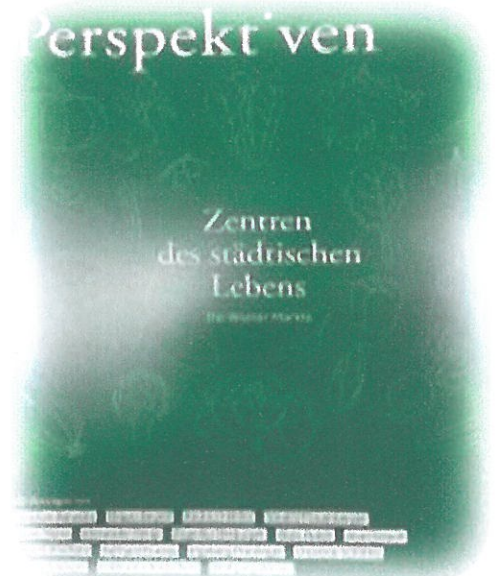
<교육자료 1>



<교육자료 2>



<교육자료 3>



<교육자료 4>

5 그밖에 참고 정보



〈도심 공원내 보도블럭을 활용한 체스(장기)판 : 공원내 오락게임〉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블라드설치,
재활용분리용 쓰레기 수거함〉



〈쓰레기 관련 문제 즉시 연락가능
하도록 직통번호(구청48호)쓰레기
통에 표시〉



〈도심내 무인자전거 대여소〉



〈 시내 관광안내 표지판〉



〈도로 중앙에 줄을 매달아 가로등을 설치한 모습〉



〈도시 미관을 고려한 심플한 간판〉



〈미관을 고려한 가로수 보호철망〉



〈쓰레기 분리형 자동배출 시스템〉



〈수거와 운반이 편리한 분리배출 쓰레기통〉



〈심플한 안내표지판〉



〈자전거 패달로 움직이는 BEER바〉



〈트램을 이용한 카페, 광장에 배치하여 관광상품화〉



〈광장에 시내 관광용 마차〉



〈눈높이에 맞는 쓰레기통〉



〈공원내 접는 벤치 : 펼친모습〉



〈공원내 접는 벤치 : 접은모습〉



〈공항에 설치한 분리형 쓰레기통〉

IV

총평 및 향후계획

① 연수 총평

- 동유럽국가의 지방의회 운영은 기관통합형으로 대립형인 우리나라와 부합하지는 않으나 주민을 대변하고 공공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음.
 - 원목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의 상태로 계단, 난간으로 활용한 사례 등(철재·시멘트 등 인공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
- 대학교 학비가 대부분 면제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는 잘 조성되어 있음. 스플릿대학교의 경우 한국내 대학교와 교류가 거의 미비하나 의과대는 영어수업 진행으로 외국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k-pop 등 한류의 효과를 활용, 도립대의 특성화된 학과(헤어뷰티학과)와 교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엔나시 행정아카데미는 공무원교육 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인 등 특화된 교육프로그램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특히, 공무원교육의 경우 소방·안전 필수교육 외 모든 교육을 스스로 결정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자율시스템이고,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까지 발굴하여 관리하여 적재적소 배치까지 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결원발생시 정규직 보다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음. 이는 향후 탄력적인 인력운용 측면(해고 등)에서 시행하는 추세라고 함.
- 금번에 방문한 동유럽 연수국가 대부분이 고대건축물(왕궁, 교회, 성당 등) 및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화 사례임.
- 구시가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스토리텔링화, 도보 시내투어, 광장내 명품거리 조성(오스트리아), 문화유적내 상품 및 카페운영, 철저한 관광지 환경미화 및 교통대책(트램 등 매연 없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 등

② 향후 계획 및 보완사항

- 연수 결과, 道 집행부 관련부서 통보(11월중)
- 본회의 연수결과보고(제292회 정례회 기간중)
- 방문기관과 사전 정보교류를 통한 방문성과 극대화 필요
 - 연수전 방문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방문목적, 필요정보 수집 등이 필요함.
 - 방문지역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방문기관 정보 및 섭외가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공신력있는 연수 주관여행사 섭외 필요함.
 - 전체일정을 고려한 공식기관(간담) 적정 추진이 필요하고 충분한 연수 준비기간 필요함(연수전 3개월전부터 준비)

동유럽 연수를 다녀오면서...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욱



선선한 날씨가 너울거리며 다가오는 계절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동유럽 국가 기관방문을 통하여 우수사례 충남도정 접목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210만 도민의 대표로서 참가하는 공무수행인 만큼 연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그 중요성을 각별히 인식하고 방문기관 섭외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우수 방문기관을 섭외하는 등 하나라도 더 배우자는 마음으로 전체 일정을 수립하여 소화하였다.

첫 방문지로는 동유럽 의회의 전반적 운영실태 등 우수사례를 파악하고자 프라하1 구의회를 방문 하였다. 프라하의 구의회는 25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의장이 구청장까지 겸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집행기관의 장을 따로 선출하여 의회에서 견제하는 구조와는 사뭇 다른 구조였다.

8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의장은 집행기관 수장으로 8개 위원회 위원장과 매주 1회 회의를 통해 정책결정 전, 민주적으로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집행기관의 장이 사전에 정책결정을 하고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를 지니고 있는데 그와 전주어 보았을 때 꽤 좋은 방향

이라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확대하는 방안
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
이 들었다.



다음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있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방문하였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찬란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여태껏 잘 보존해온 모습을 보며 우리 지역의 국립공원들의 개발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었다.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보기 위해 연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이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연 200억 원을 넘으며 지역주민 800여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우리 충남도의 국립공원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게 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도내에 국립공원에 대한 대관광자원 활용가능성을 꾸준히 연구하고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스플릿 대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우리 도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충남도립대학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찾아가게 된 곳이었다.

스플릿대학 같은 경우는 학비가 전액 무료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학비는 전액 정부예산으로 지원이 되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는 부담이 없지만 반대로 시험 테스트를 통해 공부에 소홀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사회적 분위기도 대학 입학에 집착하는 우리 현실과 다르게 50% 수준의 대학진학률을 보이며 고등학교에서부터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해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앞으로 점차 강화 될 것이다. 충남도립대학의 경우 뷰티코디네이션학과 등 직업전문인을 집중 육성하여 배출하는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은 곳은 비엔나시 공무원교육원이었다. 충남공무원교육원과 견주어 봤을 때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을 찾기 위하여 방문한 그곳에서 우리는 꽤 인상 깊은 시간을 보냈다.



소방 및 안전교육은 전 직원에 대해 필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역량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있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은 개설은 희망수요조사를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과정을 개설하고 일반 시민에게도 교육기회를 개방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비엔나시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소양 및 다양한 업무 분야의 지식 등을 습득하고 있었으며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는 자긍심 또한 대단했다.



동유럽 공무원국외연수를 마치며 동유럽의 여유로운 문화와 인간중심적인 문화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

지만 서두르고 기본을 무시해서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발생하였던 것을 고려해볼 때 한번쯤 우리 삶을 차분하게 되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OECD 국가 중 한국 자살률 1위, 그중에서도 충청남도가 자살률 1위가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8년 연속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달성한 비엔나시를 보며 우리 도의 현실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연찬회, 토론회 등 주민의견 수렴활동을 보다 확대해 이러한 인간중심적인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무사히 금번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김종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사위원님들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전문위원실 직원 및 집행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연수 후기를 마친다.



동유럽 연수소감

지방행정주사 구자승



동유럽 연수를 다녀오면서 언젠가는 우리 한반도도 통일이 되어 기차로의 여행을 기대해 보면서 소감을 적어봅니다.

11시간이 넘는 긴 비행 속을 이동하여 첫 방문지인 체코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이 참 심플한 느낌이었으며, 한글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천공항을 생각하게 하였다. 우리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연수기간 내내 동유럽의 기온은 우리나라의 초겨울로 날씨로 고생은 하지 않았지만, 6~7시간 가량의 차량이동시 많은 피로가 쌓이기도 했다.

연수단 일행은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첫 번째로 느낀 것이 정말 문화유산을 잘 보존·관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관광산업화해 나가고 있음을 한 눈에 느낄 수 있었다.

체코 프라하를 비롯한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등 방문한 도시마다 하나같이 찬란했던 중세 유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거리를 걷고 있노라면 마치 유럽의 중세시대에 와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도시풍경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었으며, 도시전체가 수백년이 지난 문화재로 그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수하여 오늘날에도 중세유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여 세계적 관광대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충남도도 천혜의 자연경관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풍부한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간다면 이들 도시처럼 관광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도시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 보았다.

체코의 프라하 성은 그 감동 자체였으며, 그 성의 웅장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프라하성은 유명한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거니와 현직 체코 대통령의 집무실로도 쓰이고 있다고 한다.

성 비투스 대성당을 접하면서 일찍 카톨릭 문화를 받아들여 좀 더 빨리 발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았겠는냐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한 블레드성의 깨끗한 환경을 생각한 배들도 전통식이나 노를 저어 사용하는 시설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은 좋은 기후 조건과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지리적인 특성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동·식물이 잘 보존되고 있는 곳으로 자연환경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여 인도교, 쓰레기통, 안내표지판 등 설치와 공원내에 전기동력을 이용한 운송수단(유람선)을 사용하였으며, 쓰러진 나무를 그대로 두어 생태계 스스로 숲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을 잘 보존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바가 크다.

세계문화유산 두브로브니크는 유적지와 주거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 도시보존 및 관리의 어려움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공감대 형성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연수의 마지막 방문국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시 공무원교육원을 방문하여 오스트리아의 공무원교육원 운영실태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엔나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 이외, 학생,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별 잠재된 능력(역량)을 분석하여 적재적소에 우수인력을 배치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우리도 공무원교육원을 통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의 마련과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소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얀은 동유럽 국가를 다녀와서 보니 이전에 막연하게 가졌던 동유럽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다. 주로 방문한 국가들이 사회주의에서 자유화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어둡고 차가울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동유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동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역사적 배경들이 유사하였고, 오래된 역사문화유적들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적절히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고 외국 관광객들을 대하는 그들의 열린 마음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점과 적극적인 문화유적 관리와 복원 정책을 볼 수 있었다는 점,

또한 도시환경은 사람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도록 도심지 차량진입 억제정책과 우리나라의 1920년대나 볼 수 있었던 시내 한복판을 가로질러 다니는 전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들의 배려 등에서 유럽인들의 생활습성도 함께 볼 수 있었다.

발전위주의 정책보다는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한번 가져보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런 소중한 연수기회를 주신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한 동료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연수후기를 마친다.